

위험해석모형을 적용한 범죄두려움의 영향요인 검증*

송영남** · 이승우***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위험해석모형을 적용하여 범죄두려움의 영향요인을 검증하는 데 있다. 특히, 기존의 연구들이 위험해석모형에서 제시된 미시적 개인요소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이 연구에서는 미시적 개인요소, 지역사회요소, 범죄 위험의 인지, 범죄두려움 등을 주요 변인으로 포함하였다. 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형사정책연구원(2012)에서 실시한 '전국범죄피해조사'의 2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해당 변인들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개별적인 영향력을 검증하고, 위험해석모형에서 제시된 인과적 경로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2단계의 다중회귀분석과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범죄 위험의 인지가 높을수록, 여성일수록, 지역사회가 무질서하다고 인식할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범죄피해를 경험할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범죄두려움을 보다 많이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위험해석모형에서 제시된 인과적 경로관계는 학력을 제외하고 모두 유의미하게 제시되었다.

주제어 : 범죄두려움, 위험해석모형, 미시적 개인요인, 지역사회요인, 범죄 위험의 인지, 다중회귀분석

* 이 논문은 제1저자의 박사학위논문을 수정하여 작성한 것임
**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사회안전교육연구원 민간경비교육센터 센터장, 범죄학박사
*** 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외래교수

목 차

- | |
|------------|
| I. 서론 |
| II. 이론적 배경 |
| III. 방법론 |
| IV. 분석결과 |
| V. 결론 |

I. 서론

범죄두려움은 지난 20~30년 동안 정치적으로 중요한 화제가 되어 왔으며, 범죄두려움으로 파생되는 사회적 비용으로 인해 사회과학분야에서도 넓은 관심을 끌어들였다. 특히, 범죄두려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대로 현대 범죄학에 중요한 관심주제가 되었으며, 2005년을 분기점으로 하여 범죄두려움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2015년 4월 국내 경찰학 및 범죄학 등 형사사법 연구에서 ‘범죄두려움’이라는 주제로 600여 건의 논문이 검색되고 있으며, 이는 2005년 이전 동일 주제로 20여 편의 논문이 검색되는 점과 비교할 때, 범죄두려움 관련 국내 연구가 큰 발전을 이루었음을 보여준다(김연수, 2015).

이러한 범죄두려움에 대한 기존의 접근방법은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미시적 접근은 크게 성별, 연령 등 개인의 신체적 특징에 따라 범죄두려움을 차별적으로 인식한다는 취약성모형(Killias, 1990; Skogan & Maxfield, 1981)이나 사람들은 개개인의 생활환경이 다르고 이에 따라 범죄 위험에 높은 상황지역시간에 노출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위험부담이 다르다고 가정하는 생활양식노출모형(Hindelang et al., 1978)으로 대표할 수 있다. 그러나 취약성모형이나 생활양식노출모형 등의 미시적 접근방식은 취약한 특정 계층에 대한 범죄두려움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범죄피해의 책임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전

환시킨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이윤호, 2007: 399).

이에 미시적 접근방식의 한계를 보완하여, 범죄피해의 책임을 특정한 취약계층의 개인이 아닌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에 확대하는 거시적 접근방법은 사회통제이론으로 대표되며, 이 중에서도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에 중점을 둔 무질서모형과 이를 발전시킨 집합효율성모형이 주목받고 있다(Skogan, 1987; 노성호·김지선, 1998).

특히, 무질서모형에서는 지역사회가 물리적 환경들인 반달리즘, 쓰레기 방치, 버려진 차량이나 건물 등과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취하는 행동양식인 불량배집단, 노숙자, 주취자, 부랑자 등에 따라 개인이 인식하는 범죄두려움이 증감될 수 있다고 본다. 이처럼 거시적 관점은 기존의 범죄두려움의 원인이 오로지 개인이었다면, 이를 지역사회까지 확장시킨 개념으로 범죄에 대해 지역사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점을 환기시킨다(Skogan & Maxfield, 1981).

그러나 범죄현상을 특정 모형이나 이론, 나아가 단편적인 접근방식으로 설명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존재한다. 범죄는 특정한 요인들이 다른 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며, 이러한 상호작용을 토대로 장소, 시간, 범죄자, 그리고 피해자가 충족될 때 발생한다(이윤호, 2007: 397). 이에 범죄두려움은 특정한 모형의 독자적인 관계보다는 다양한 모형들의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주목해야 된다. 즉, 범죄 혹은 범죄두려움은 다양한 개인적·지역적 특성의 영향에서 개인들의 사회적 상황 맥락에 따라 조절되거나 서로 차별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장안식, 2012).

이러한 현상을 보완하고자, 최근에는 미시적 관점과 거시적 관점을 통합하려는 시도로 위험해석모형이 등장했으며, 범죄두려움은 취약성과 같은 개인적 그리고 무질서 등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본인이 인식하는 범죄피해 가능성을 의미하는 범죄위험의 인지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범죄 위험의 인지는 범죄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보호행동이나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고 있다(Ferraro, 1995). 특히, Ferraro(1995)는 범죄두려움과 범죄 위험의 인지의 구분을 명시하였는데, 범죄두려움은 범죄에 대한 걱정, 불안 등의 총체적인 정서적 반응이지만, 범죄 위험의 인지는 범죄에 대한 위험의 해석, 나아가 본인이 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을 인식시키는 정도라고 볼 수 있다.

범죄두려움에 대한 연구는 분명 2005년을 기점으로 많은 발전을 이뤘다. 특히, 범죄두려움과 미시적·거시적 개별적 모형 간의 관계는 이미 다수의 연구에서 규명되었

다. 그러나 이러한 미시적·거시적 관점을 통합한 위험해석모형은 국내에서는 소수의 연구결과만 존재한다(이성식, 2000; 신소영·김창호, 2015; 김연수 2015).

특히, 앞서 언급한대로 위험해석모형에 대한 연구들은 소수 존재하나 위험해석모형이 가지는 의의인 통합적 접근의 시도가 아닌, Ferraro(1995)의 연구를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의 검토였으며(이성식, 2000), 다양한 개인적 특성을 포함하는 것이 아닌 노인이라는 특정 계층에 국한(신소영·김창호, 2015), 그리고 위험해석모형이 제시한 인과적 경로관계에 주목하였으나 미시적 개인요인을 포함하지 않았던 한계를 지닌다(김연수, 2015).

이에 이 연구에서는 위험해석모형에서 제시된 미시적 개인요인, 지역사회요인, 범죄 위협의 인지 등이 범죄두려움에 실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 이러한 요인들 간의 인과적 경로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미시적 개인요인을 지수화를 통해, 하나의 잠재변인으로 구성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범죄 위협의 인지와 범죄 두려움 등의 관계에서 영향력의 정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는 비록 위험해석모형에 관한 연구들이 소수였지만,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하여 범죄두려움을 보다 폭넓게 바라보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범죄두려움의 의의

두려움이라는 것이 어떤 실체가 있다기보다는 일종의 추상적이고 감정적인 의미로, 일반적인 의미에서 두려움이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무서워하며 걱정하는 것이며,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범죄와 관련하여 사람에게 심리적 불편함을 초래하는 반응”이라 정의할 수 있다(조은경, 2003).

초기 범죄두려움 연구들에서는 두려움을 ‘개인이 범죄피해자가 될 확률’로 정의하여 현대적 관점에서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주제라 보기 어려울 정도이다(Furstenberg, 1971). 범죄두려움은 단순히 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 위협 등에 대한 우려와는 분명히 다른 개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그 이후로 범죄두려움은 ‘범죄와 관련된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이라고 보다 포괄적으로 재정의 되기도 하였다

(Warr & Stafford, 1983; Ferraro, 1995). 또한 범죄두려움을 ‘범죄에 대한 민감성’을 중심으로 파악하여 ‘위험과 불안감에 의한 감정적 반응’이라고 보기도 한다. 이는 두려움이 반드시 신체적 손상을 수반할 필요가 없다는 시각을 담고 있다(Warr, 2000).

그리고 범죄두려움을 “어떠한 범죄적 측면과 관련한 환경에서 인식되는 물리적 위협으로 인하여 발생된 위험 또는 걱정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라고 보기도 하는데(Garofalo, 1981), 이는 실제로 범죄에 대한 위험과 불안을 직접적으로 경험, 혹은 간접적으로 관찰하게 되는 경우, 혹은 범죄가 발생 가능한 환경조건을 인식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감정적 작용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들을 종합해 볼 때, 범죄두려움의 발생 원인이 직접적인 범죄피해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그것의 개념 또한 특정 범죄행위의 피해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위협의 정도, 그리고 그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반응을 포함한 보다 넓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Garofalo & Laub, 1978). 실제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삶의 질’이라는, 범죄라는 특정 현상에 한정하지 않은 보다 넓은 상위개념의 한 부분으로 파악하였는데, 이는 범죄두려움이 하나의 개인만이 아닌, 그 개인을 둘러싼 환경으로부터 나오는 특정 위협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넓은 개념화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범죄두려움은 사회의 실제 범죄현상에 의해 야기되는 실질적이고 산술적인 위협의 정도라기보다는 오히려 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필요가 있다(Skogan & Maxfield, 1981). 이와 관련하여 김연수(2010)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반드시 범죄피해를 직접 경험한 결과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특정 범죄행위의 피해에 대한 인지적 위협과 그에 대한 정서적 반응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개념화를 통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원인으로 직접적인 범죄피해경험을 포함한 타인의 범죄피해경험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여, 실제적인 개인 간의 의사소통과 미디어에 의한 범죄소식노출 등이 추가될 수 있었던 것이다.

범죄두려움의 개념 정의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정서적 반응으로서의 두려움(Warr & Stafford 1983; Ferraro, 1995)과 막연한 피해가능성으로서의 두려움(Furstenberg, 1971)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또는 Skogan의 구분법에 따라 범죄피해의 두려움을 ‘평가적 측면’, 즉 해당 행위에 대한 위험성 평가의 부분과 해당 행위에 대해 개인적인 위협을 느끼는 감정적 요소로 구분하여 파악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Williams &

Dickinson, 1993).

2. 위험해석모형

위험해석모형(risk interpretation model)에서는 기존의 미시적·거시적 이론들을 통합하는 주장을 제기한다(Ferraro, 1995). 이 모형에서는 기존의 범죄두려움관련 연구들에서 제시되었던 개인의 특성들을 포함하여, 거주지역의 특성 모두가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통합론적 모형을 제기하고 있다.

예컨대, 범죄 혹은 범죄두려움은 다양한 영향요인들의 산물이며, 개별요인들은 범죄 혹은 범죄두려움과 직접적인 경로관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과적 경로관계를 토대로 증감될 수 있다고 본다. 즉, 범죄두려움은 인구사회학적 요소들로 볼 수 있는 성별, 연령, 소득수준, 학력, 범죄피해경험 등의 미시적 개인요소와 지역사회의 범죄 발생빈도, 경제규모, 인구구성, 인구밀도, 사회통제요인 등의 거시적 환경요소 등이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무질서 정도에 해당하는 지역사회요소와 본인이 판단했을 때 범죄발생 가능성에 해당하는 범죄 위협의 인식 등에 영향을 주고, 이러한 지역사회요소와 범죄 위협의 인식은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Ferraro(1995)는 범죄두려움에 대한 미시적·거시적 요인, 범죄 위협의 인지, 범죄방어행위 혹은 제약된 행동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범죄두려움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위험해석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범죄두려움과 범죄 위협의 인지의 개념을 분리해 내었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특성, 그리고 거주지역의 특성을 기반으로 범죄피해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해석하는 방식이 범죄두려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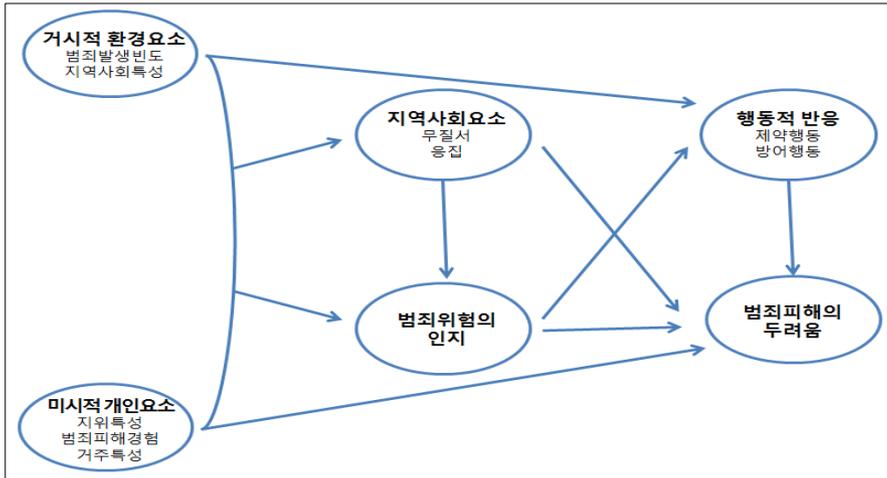
실제로 범죄두려움이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기본으로 하여, 걱정과 불안 등의 유사한 감정들의 총체적인 정서반응임에도, 다수의 연구들에서 범죄두려움을 측정함에 있어 “이 지역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범죄피해의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등,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식의 ‘인지’와 관련된 질문을 통해 측정하려 해 온 것이 사실이다. 즉, Ferraro(1995)는 이러한 비판을 기초로 하여 위의 두 가지 개념이 반드시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근의 다른 몇몇 연구에서도 두 개념이 개념적으로 구분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데(Rountree, 1998; Warr & Stafford, 1983; LaGrange & Ferraro, 1989; LaGrange et al., 1992), Ferraro(1995)는 이들을 단순히 구분하는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두려움’이라는 공포 그 자체보다는 도리어 범죄피해에 대한 위험 ‘인지’와 ‘해석’이 범죄두려움에 있어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범죄두려움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범죄 위험의 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동시에 연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이성식, 2000).

Ferraro(1995)는 범죄피해에 대한 위험의 인지 및 해석에 영향을 주는 주요 원인으로 ‘무질서’와 ‘지역결속력’을 강조하였고, 그것에 대한 접근방식에서도 지역수준의 요인들보다는 ‘개인이 인지한’ 지역의 무질서 그리고 ‘개인이 인지한’ 지역의 결속력이라는, 결국 전적으로 개인의 인지와 해석에 기초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즉, 그는 지역의 객관적 특성보다는 개인의 피해위험인지가 두려움의 궁극적인 주요 원인이라 강조하였으며, 어떠한 다른 변인들보다 그것을 개인들이 어떻게 인지하고 해석하는가를 보다 중요한 요소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신의기 외, 2014).

다만, 그와 동시에 그러한 해석과 인지는 성별 및 나이와 같은 개인적 특성, 범죄에 대한 피해경험의 여부, 그리고 지역의 무질서와 지역에 대한 만족도, 집합효율성, 경찰의 가시성과 같은 일반적인 특성들, 혹은 지역의 공식 범죄율이나 경제수준 등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봄으로써 통합적 모델을 구축하는 작업의 일환으로서 거시차원의 특성과 함께 개인수준의 요인들 또한 소홀히 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연계하려는 시도를 보인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인이 인지한’ 정서적 측면에서의 인과적 경로관계에 주목하였다. 이에 개인적 특성에 해당하는 미시적 개인요소와 지역사회에 대한 개인의 인지를 강조한 지역사회요소가, 본인이 판단했을 때의 범죄피해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인지적 측면이 범죄에 대한 총체적인 정서적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지역사회요소, 범죄 위험의 인지, 범죄두려움 간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에서 더 나아가 Ferraro(1995)가 제시한 위험해석모형의 인과적 경로관계에 보다 근접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출처 : Ferraro, 1995

[그림 1] 위험해석모형

3. 선행연구검토

위험해석모형을 보다 직접적으로 검증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2007년에 이루어진 Ferguson과 Mindel의 경험연구를 들 수 있다. 결과적으로 Ferguson과 Mindel(2007)은 Ferraro(1995)가 제시한 위험해석모델에서와 동일한 결과를 얻었는데, 범죄피해위험에 대한 개인의 인지가 범죄두려움에 가장 큰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었으며, 그 외에도 성별, 개인의 범죄피해 경험 여부,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 무질서의 정도가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냈다. 또한 여기서 성별, 개인의 범죄피해 경험 여부,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와 무질서의 정도는 직접적 영향효과도 있었지만 범죄위험의 인지라는 변수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혀냈고, 경찰가시성도 집합효율성에 영향을 주어 결국 범죄두려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며, 집합효율성 또한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범죄두려움에 매개효과를 갖는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Chiricos와 그의 동료들(1997)의 연구에서도 범죄두려움과 위험에 대한 판단, 혹은 지각을 질적으로 구분한 척도를 사용하여 위험의 지각과 범죄두려움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인종과 관계없이 높은 수준의 두려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도출된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국내연구의 경우, 이민식(2000)이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Ferraro의 위험해석모형을 검증한 바 있다. 이 연구의 특징은 다른 연구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Ferraro가 지적하였던 변수들을 본래의 취지와 가장 흡사하게 검증하였다는 것이다. 범죄두려움과 범죄피해의 지각을 구분할 수 있는 Warr와 Stafford(1983)의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다만 연구대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존 위험해석모형이 상정하지 않은 두 가지 외생변수인 ‘영어구사력’과 ‘흑인에 대한 편견’이라는 변수를 추가하여 모형을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Ferraro(1995)의 논의와 동일하게 범죄피해에 관하여 더 많이 인지하고 지각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더 높은 정도의 자기방어행동을 보이고, 이는 더 높은 정도의 범죄두려움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인집단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위험해석모형을 검증한 신소영·김창호(2015)에 의하면 지역사회의 무질서는 범죄 위협의 인지와 행동적 반응 및 범죄두려움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며, 범죄피해경험의 경우는 직접적 범죄피해경험은 범죄 위협의 인지에만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한편 간접적 범죄피해경험은 범죄 위협의 인지와 범죄두려움 모두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위험해석모형의 인과적 경로관계를 검증한 김연수(2015)의 연구에서 지역사회의 무질서는 범죄 위협의 인지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범죄 위협의 인지는 범죄두려움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고 있어, 기존의 Ferraro(1995)가 제시한 인과적 경로관계를 규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대로 위험해석모형관련 국내의 연구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국내의 연구에서는 위험해석모형에서 제시한 미시적·거시적 요인들과 범죄 위협의 인지, 그리고 범죄두려움 등 모든 요인들에 대해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대부분 미시적 개인요인들을 제외한 거시적 요인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있다(김연수, 2015; 신소영·김창호, 2015). 이에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그동안 간과되었던 미시적 개인요인을 중요한 변인으로 포함하고 있다. 특히, 위험해석모형 외에 범죄두려움관련 연구에서 이미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 널리 활용되어온 미시적 개인요인들은 범죄두려움과 직접적인 인과관계 검증은 규명되었다. 그러나 범죄 혹은 범죄두려움은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의 결과이기에,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미시적 개인요인과 범죄두려움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검증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닌, 위험해석모형에서 제시된 인과적 경로관계를 규명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다.

Ⅲ. 방법론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이 연구의 분석자료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2)에서 실시한 ‘전국범죄피해조사’인 2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모집단은 2013년 5월 29일을 기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및 만 14세 이상의 가구원이며,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일반조사구 중 보통조사구와 아파트 조사구를 표본추출틀로 활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김은경 외, 2014). 총 306,433개 조사구를 최종 표본 추출틀로 사용하여 표본규모 분석을 실시하였고 예산상의 제약으로 대상을 630개 조사구로 한정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선정된 조사구당 10가구를 뽑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조사원이 조사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자기기입식 조사를 원하는 경우 자기기입식 조사를 병행하였다(김은경 외, 2014). 범죄피해조사를 통해 총 13,317건의 기초조사표가 수집되었다.

2. 변수의 측정

1) 종속변수

이 연구의 종속변인은 범죄두려움으로 Ferraro(1995)는 범죄두려움을 범죄와 관련된 된 무서움 혹은 불안감 등의 정서적 반응으로 한정하였다. 범죄두려움은 개념화의 복잡성으로 인해 측정 상에서 학자별로 명확한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일반적 두려움과 구체적 두려움으로 구분된다(김상운·신재현, 2012).

일반적 두려움은 범죄 상황에 대한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두려움을 의미하며, 구체적 두려움은 정서적 차원으로서 구체적인 범죄를 상정하고 구체적인 범죄 피해의 위험 및 가능성을 걱정하고 그것으로 인해 파생되는 정서적인 두려움을 의미하며, 다수의 연구에서 구체적 범죄 유형으로 절도, 강도, 폭행, 사기, 성폭력, 기물파괴, 주거

침입, 괴롭힘 등 총 8개의 범죄 유형으로 설정하여 구성하고 있다(김연수, 2010; 장안식, 2012; Keane, 1992). 앞선 범죄 유형을 포함하여, 설문문항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Cronbach's $\alpha = .945$).

2) 독립변수

(1) 미시적 개인요인

이 연구의 미시적 개인요인은 성별, 연령, 소득수준, 범죄피해경험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성별은 남자는 ‘1’, 여자는 ‘0’으로 더미화하여 재코딩하였다. 연령은 만 나이로 구성된 연속변수로 이를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으로 재코딩하였다. 다음으로 소득수준은 본인의 월평균가구소득으로 1) 소득없음, 2) 100만원 미만, 3) 100~200만원, 4) 200~300만원, 5) 300~400만원, 6) 400~500만원, 7) 500만원 이상의 응답으로 측정되었다. 학력은 1) 초등학교 졸업이하, 2) 중학교 졸업, 3) 고등학교 졸업, 4) 2년제 대학교 졸업, 5) 4년제 대학교 졸업, 5) 대학원 이상의 응답으로 측정되었다. 그리고 범죄피해경험은 작년 한 해 동안의 사기, 절도, 주거침입, 손괴, 협박, 폭행, 괴롭힘 등의 범죄피해로 구성하고 있으며, 이를 있다는 ‘1’, 없다는 ‘0’으로 더미화하여 재코딩하였다. 미시적 개인요인을 지수화로 통해 하나의 잠재변인으로 구성하지 않고, 개별적 영향력을 검토하기 위해 각각 활용하였다.

(2) 지역사회요인

이 연구의 지역사회요인은 김연수(2015)의 연구에서 타당성을 검토한 문항들을 이용하여, 이를 다시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물리적 무질서는 지역사회 내 물리적 환경과 관련된 것으로 반달리즘, 쓰레기, 빈집, 버려진 차량이나 건물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주변에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었고 지저분했다’, ‘어둡고 후미진 곳이 많았다’, ‘주변에 방치된 차나 빈 건물이 많았다’ 등 총 3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의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Cronbach's $\alpha = .769$).

다음으로 사회적 무질서는 지역사회 내의 구성원들이 취하는 행동양식으로서 불량배집단, 노숙자, 주취자, 부랑자 등의 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회적 무질서는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 ‘무리 지어 다니는 불량 청소년들이 많았다’, ‘큰소리로 다투거나 싸우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었다’ 등 총 3문항을 사용하

였으며,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의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Cronbach's $\alpha = .765$).

2) 매개변수

위험해석모형에서 제시된 경로적 관계에서 매개변수에 해당하는 범죄 위협의 인지는 두려움이라는 정서적 측면보다는 본인이 판단했을 때,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을 의미한다. 범죄 위협의 인지는 구체적인 범죄유형에 대한 피해가능성을 질문하고 있으며, 10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나(Ferraro, 1995), 이 자료는 2차 자료의 활용으로 범죄 위협의 인지에 관한 항목이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1문항으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의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고 있다. 이에 부득이, 범죄 위협의 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이 하나밖에 없어 이 문항으로만 측정하였다. 그리고 위험해석모형을 적용한 기존의 연구에서도 하나의 문항을 이용하여 분석에 활용한 바가 있다(김연수, 2015).

3. 분석방법

이 연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음으로 주요 변수인 범죄두려움, 지역사회요인, 범죄 위협의 인지 등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종속변수인 범죄두려움을 중심으로 인구사회학적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과 일원배치분산분석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alpha계수를 이용하였다. 다음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주요변인들 간의 관계의 정도와 다중공선성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과 VIF지수를 활용하였다. VIF지수 검증 결과, 모든 변인에서 다중공선성의 판단기준인 10이상을 넘는 변수는 없었으며, 대체로 1.40 이하의 수치를 보였다.

이러한 기초분석을 실시한 후, 이 연구의 주요 가설인 위험해석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총 2단계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모형1에서 범죄 위협의 인지를 종속 변인으로 설정하여 위험해석모형에서 제시된 미시적 개인요인과 지역사회요인들이 범죄 위협의 인지에 실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 분석하였으며, 다음으로 모형 2를 통해, 범죄 위협의 인지의 매개적 경로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범죄두려움을 종속

변인으로 설명하여 앞선 변인들과 함께 범죄 위험의 인지를 추가로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인과적 경로관계가 유의미한지 Sobel 검정을 통해 사후검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은 MacKinnon과 Dwyer(1993)가 매개효과(mediating effect)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해 제안한 방식이다. 분석도구는 STATA 13.0을 사용하였다.

IV. 분석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이 연구 자료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전체 표본은 16,703명이며, 성별은 여자가 8,715명(52.2%)으로 남자의 7,988명(47.8%)에 비해 다소 많은 수치를 보였다. 다음으로 연령은 60대 이상이 3,665명(21.9%)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가 3,308명(19.8%), 30대가 3,120명(18.7%), 50대가 2,936명(17.6%), 20대가 2,193명(13.1%), 10대 이하가 1,481명(8.9%)의 순으로 제시되었으며, 대체로 연령대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소득없음이 9,785명(58.6%)으로 가장 많았으며, 100만원 미만이 1,943명(11.6%), 100~200만원이 1,833명(11.0%), 200~300만원이 1,417명(8.5%), 300~400만원이 950명(5.7%), 400~500만원이 354명(2.1%), 500만원 이상이 421명(2.5%)의 순으로 제시되었으며, 대체로 월간 소득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학력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이 5,753명(34.4%)으로 가장 많았으며, 4년제 대학교 졸업이 3,547명(21.2%), 초등학교 졸업이하가 2,696명(16.1%), 2년제 대학교 졸업이 2,146명(12.8%), 중학교 졸업이 2,014명(12.1%), 그리고 대학원 이상이 547명(3.3%)의 순으로 제시되었다. 이에 대체로 학력이 높게 제시되었다. 범죄피해경험은 없음이 15,648명(93.7%)으로 있음의 1,055명(6.3%)에 비교해보면, 대다수의 연구대상자들은 범죄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제시되었다.

〈표 1〉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빈도	
		명	%
전체		16703	100%
성별	남자	7,988	47.8
	여자	8,715	52.2
연령	10대	1,481	8.9
	20대	2,193	13.1
	30대	3,120	18.7
	40대	3,308	19.8
	50대	2,936	17.6
	60대 이상	3,665	21.9
소득	소득없음	9,785	58.6
	100만원 미만	1,943	11.6
	100~200만원	1,833	11.0
	200~300만원	1,417	8.5
	300~400만원	950	5.7
	400~500만원	354	2.1
	500만원 이상	421	2.5
학력	초등학교 졸업이하	2,696	16.1
	중학교 졸업	2,014	12.1
	고등학교 졸업	5,753	34.4
	2년제 대학교 졸업	2,146	12.9
	4년제 대학교 졸업	3,547	21.2
	대학원 이상	547	3.3
범죄피해경험	없음	15,648	93.7
	있음	1,055	6.3

2. 주요 변수의 특성

이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분석을 실시하였다. 범죄두려움은 평균 2.22(표준편차=0.84)로 제시되어, 이 연구의 대상자들은 대체로 범죄두려움을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역사회요인인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 변인들을 각각 살펴보면, 물리적 무질서는 평균 2.42(표준편차=0.82)로 제시되어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들이 나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회적 무질서는 평균 2.37(표준편차=0.79)로 제시되어 물리적 무질서와 유사하게 심리적 환경들이 나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를 상호비교해보면, 물리적 무질서의 평균이 사회적 무질서에 비해 다소 높게 제시되어, 지역사회 구성원의 행동양식보다 물리적 외부환경을 더욱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범죄 위협의 인지를 살펴보면, 평균 2.16(표준편차=0.84)로 제시되어 다수의 연구대상자들은 타인에 비해 범죄에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낮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모든 변수들의 분포의 범위는 최솟값 1에서 최댓값 5로 제시되었다.

평균을 중심으로 이를 종합하면, 물리적 무질서가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사회적 무질서, 범죄두려움, 범죄 위협의 인지의 순으로 제시되었다.

〈표 2〉 주요 변수의 기술분석 결과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범죄두려움	16703	2.22	.84	1	5
지역 사회 요인					
물리적 무질서	16703	2.42	.82	1	5
사회적 무질서	16703	2.37	.79	1	5
범죄 위협의 인지	16703	2.16	.84	1	5

3. 범죄두려움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

범죄두려움을 중심으로 인구사회학적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의 결과는 다음의 <표 3>에 나타난 것과 같다.

〈표 3〉 범죄두려움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

	구분	평균	표준편차	t/F(df)
성별	남자	2.02	0.77	30.27*** (16701)
	여자	2.40	0.86	
연령	10대	2.35	0.85	91.00*** (5, 16697)
	20대	2.38	0.89	
	30대	2.35	0.84	
	40대	2.23	0.82	
	50대	2.16	0.80	
	60대 이상	2.01	0.79	
소득	소득없음	2.30	0.85	44.96*** (6, 16696)
	100만원 미만	2.02	0.83	
	100~200만원	2.18	0.81	
	200~300만원	2.15	0.79	
	300~400만원	2.07	0.79	
	400~500만원	2.10	0.78	
학력	500만원 이상	2.10	0.77	42.76*** (5, 16697)
	초등학교 졸업이하	2.02	0.79	
	중학교 졸업	2.23	0.83	
	고등학교 졸업	2.24	0.85	
	2년제 대학교 졸업	2.32	0.84	
	4년제 대학교 졸업	2.27	0.84	
범죄피해경험	대학원 이상	2.26	0.82	-15.52*** (16701)
	없음	2.20	0.83	
	있음	2.61	0.85	

***p < 0.001, **p < 0.01, *p < 0.05

성별에 따른 범죄두려움의 차이를 살펴보면, 여자가 평균 2.40(표준편차=0.86)로 남자의 평균 2.02(표준편차=0.77)에 비해 범죄피해에 대해 더 많은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t값 30.27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성별에 따라 범죄

두려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연령에 따른 범죄두려움의 차이를 살펴보면, 20대가 평균 2.38(표준편차=0.89)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범죄두려움을 가장 많이 인식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30대와 10대가 각각 평균 2.35(표준편차=0.84, 표준편차=0.85), 40대의 평균 2.23(표준편차=0.82), 50대의 평균 2.16(표준편차=0.80), 60대 이상이 평균 2.01(표준편차=0.79)의 순으로 제시되었다. 대체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많이 인식하고 있었으며, F값은 91.00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연령에 따라 범죄두려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소득수준에 따른 범죄두려움의 차이를 살펴보면, 소득이 없음이 평균 2.30(표준편차=0.85)로 가장 높게 제시되었으며, 다음으로 100~200만원이 평균 2.18(표준편차=0.81), 200~300만원의 평균 2.15(표준편차=0.79), 400~500만원의 평균 2.10(표준편차=0.78), 500만원 이상이 평균 2.10(표준편차=0.77), 300~400만원의 평균 2.07(표준편차=0.79), 100만원 미만이 평균 2.02(표준편차=0.83)의 순으로 제시되었다. 대체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범죄두려움을 많이 인식하는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F값은 44.9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범죄두려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학력에 따른 범죄두려움의 차이를 살펴보면, 2년제 대학교 졸업이 평균 2.32(표준편차=0.84)로 가장 높게 제시되었고, 다음으로 4년제 대학교 졸업의 평균이 2.27(표준편차=0.84), 대학원 이상이 평균 2.26(표준편차=0.82), 고등학교 졸업이 평균 2.24(표준편차=0.85), 중학교 졸업이 평균 2.23(표준편차=0.83),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평균이 2.02(표준편차=0.79)의 순으로 제시되었다. 대체로 학력이 높을수록 범죄두려움을 많이 인식하는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F값은 42.7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학력에 따라 범죄두려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범죄피해경험에 따른 범죄두려움의 차이를 살펴보면, 범죄피해를 경험한 적 있음이 평균 2.61(표준편차=0.85)로 범죄피해를 경험한 적 없음의 평균 2.20(표준편차=0.83)에 비해 범죄두려움을 더 많이 인식하는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t값은 -15.52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범죄피해경험에 따라 범죄두려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상관관계분석

<표 4>는 이 연구의 주요 변수들 간의 관련성과 다중공선성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다중공선성의 판단 기준인 0.9이상의 상관계수를 넘는 변수들이 없었으며, 대체로 변수 간에는 유의수준 0.001 내로 상관관계가 있었다. 범죄두려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미시적 개인요인에서 성별은 부(-)적 영향을, 연령은 부(-)적 영향을, 소득수준은 부(-)적 영향을, 학력은 정(+)적 영향을, 범죄피해경험은 정(+)적 영향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요인에서 물리적 무질서는 정(+)적 영향을, 사회적 무질서는 정(+)적 영향을, 그리고 범죄 위협의 인지는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여자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범죄피해에 대한 경험이 많을수록,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지역사회의 사회적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범죄 위협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인지할수록, 범죄두려움을 보다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표 4〉 상관관계분석

	1	2	3	4	5	6	7	8	9
1	1								
2	-.23***	1							
3	-.15***	-.04***	1						
4	-.09***	.50***	.15***	1					
5	.09***	.17***	-.45***	.22***	1				
6	.12***	-.00	-.05***	.04***	.02**	1			
7	.24***	-.00	-.11***	-.04***	-.010	.08***	1		
8	.29***	.01	-.19***	-.01	.11***	.11***	.61***	1	
9	.55***	-.20***	-.08***	-.09***	.02*	.09***	.18***	.20***	1

1) *p<.05, **p<.01, ***p<.001

2) 1. 범죄두려움, 2. 성별, 3. 연령, 4. 소득수준, 5. 학력, 6. 범죄피해경험,

7. 물리적 무질서, 8. 사회적 무질서, 9. 범죄 위협의 인지

5. 위험해석모형의 검증

1) 다중회귀분석결과

이 연구의 목적은 위험해석모형을 적용하여 범죄두려움의 영향요인을 검증하는 것으로, 위험해석모형 관련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개인적 특성에 해당하는 미시적 개인요인을 포함하여 검증하지 않고, 단순히 지역사회요인, 범죄 위험의 인지, 범죄두려움 간의 경로적 관계에 중점을 맞추고 있어, 이 연구에서는 미시적 개인요인, 지역사회요인 등이 범죄 위험의 인지와 범죄두려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 위험해석모형에서 제시된 인과적 경로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먼저, 모형1은 범죄 위험의 인지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미시적 개인요인인 성별, 연령, 소득수준, 학력, 범죄피해경험과 지역사회요인인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 등의 변인이 실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표준화계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학력을 제외하고, 여성일수록,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행동양식이 좋지 않다고 인식할수록, 지역사회 내 물리적 환경들이 좋지 않다고 인식할수록, 범죄피해를 경험할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본인이 인식할 때 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을 보다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모형1은 범죄 위험의 인지 변량의 9.1% 설명하는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F_{값}$ 238.48로 전체 모형은 유의미하였다.

다음으로 2단계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범죄 위험의 인지의 변인을 추가로 투입하여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모든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이를 표준화계수를 통해 살펴보면, 범죄 위험의 인지가 높을수록, 여성일수록,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행동양식이 좋지 않다고 인식할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지역사회 내 물리적 환경들이 좋지 않다고 인식할수록, 범죄피해를 경험할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범죄두려움을 보다 많이 인식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특히, 학력은 범죄 위험의 인지와와의 관계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범죄두려움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는 범죄두려움 변량의 36.8% 설명하는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F_{값}$ 1214.32로 전체 모형은 유의미하였다.

〈표 5〉 다중회귀분석결과

변수명	모형1 (범죄위험의 인지)			모형2 (범죄두려움)		
	B	SE	β	B	SE	β
상수	1.850***	0.038	-	0.845***	0.034	-
성별	-0.357***	0.014	-0.213	-0.281***	0.012	-0.168
연령	-0.028***	0.005	-0.053	-0.035***	0.004	-0.067
소득수준	0.012*	0.005	0.022	0.021***	0.004	0.039
학력	0.006	0.005	0.010	0.031***	0.004	0.052
범죄피해경험	0.208***	0.026	0.060	0.182***	0.021	0.053
물리적 무질서	0.094***	0.009	0.093	0.064***	0.008	0.063
사회적 무질서	0.134***	0.010	0.125	0.147***	0.008	0.138
범죄 위험의 인지				0.469***	0.006	0.469
N		16703			16703	
R2		0.091			0.368	
F		238.48***			1214.32***	

***p < .001, **p < .01, *p < .05

2) Sobel 검정

다음으로 앞선 회귀분석을 결과를 통해, 위험해석모형에서 제시된 인과적 경로관계가 유의미한지 Sobel검정¹⁾을 토대로 사후검정한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Sobel 검정의 Z값은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으면 영가설을 기각하므로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Baron & Kenny, 1986).

성별, 연령, 소득수준, 범죄피해경험 등 미시적 개인요인과 범죄두려움 간의 관계에서 범죄 위험의 인지가 매개하는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다음으로 지역사회요인과 범죄두려움 간의 관계에서도 범죄 위험의 인지가 매개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1) Z = \frac{ab}{\sqrt{b^2 SE_a^2 + a^2 SE_b^2}}$$

a : 독립변수 → 매개변수 비표준화계수, SEa : a의 표준오차

b : 매개변수 → 종속변수 비표준화계수, SEb : b의 표준오차

구체적으로, 성별과 연령은 범죄 위협의 인지를 종속변수를 설정한 모형1에서 보면,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다시 범죄두려움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모형2에서, 범죄 위협의 인지는 범죄두려움과 정(+)적 영향을, 그리고 성별(혹은 연령)과 범죄두려움 간의 직접적인 관계에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일수록(혹은 연령이 낮을수록), 범죄위험의 인지가 높을수록, 범죄두려움을 보다 많이 인식하는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성별(혹은 연령)과 범죄두려움 간의 직접적인 관계보다 범죄 위협의 인지의 매개적 관계가 보다 큰 영향력으로 제시됨을 Sobel 검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Z=-24.24^{***}$, -5.59^{***}).

다음으로 소득수준, 범죄피해경험, 물리적 무질서, 사회적 무질서는 범죄 위협의 인지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모형1에서 보면, 모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다시 범죄두려움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모형2에서, 범죄 위협의 인지는 범죄두려움과 정(+)적 영향을, 그리고 소득수준 등 다른 변수들은 범죄두려움 간의 직접적인 관계에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혹은 범죄피해경험이 많을수록, 물리적 무질서를 높게 인식할수록, 사회적 무질서를 높게 인식할수록), 범죄 위협의 인지가 높을수록, 범죄두려움을 보다 많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변인들과 범죄두려움 간의 직접적인 관계보다는 범죄 위협의 인지의 매개적 관계가 보다 큰 영향력으로 제시됨을 Sobel검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Z=2.40^{***}$, 7.96^{***} , 10.35^{***} , 13.21^{***}).

이러한 분석결과는 미시적 개인요인과 지역사회요인은 범죄두려움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완전매개효과가 아닌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특히, 앞선 회귀분석결과, 미시적 개인요인에 해당하는 학력은 매개적 관계가 증명되지 않았지만, 학력은 범죄두려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표 6〉 Sobel 검정

경로	Z	P
성별	-24.24	.000
연령	-5.59	.000
소득수준	2.40	.016
범죄피해경험 → 범죄 위협의 인지 → 범죄두려움	7.96	.000
물리적 무질서	10.35	.000
사회적 무질서	13.21	.000

V.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범죄두려움관련 미시적·거시적 통합모형인 위험해석모형을 적용하여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검증하는 것으로, 기존의 연구에서는 위험해석모형에서 제시된 미시적 개인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사회요인과 범죄 위험의 인지 그리고 범죄두려움 간의 인과적 경로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제외된 미시적 개인요인들을 변인을 포함하여, 이러한 변인들이 범죄의 위험 인지와 범죄두려움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한 후, 위험해석모형에서 제시된 인과적 경로관계를 증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범죄 위험인지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을 때, 여성일수록,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행동양식이 좋지 않다고 인식할수록, 지역사회 내 물리적 환경들이 좋지 않다고 인식할수록, 범죄피해를 경험할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본인이 인식할 때 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을 보다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범죄두려움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을 때, 범죄 위험의 인지가 높을수록, 여성일수록,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행동양식이 좋지 않다고 인식할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지역사회 내 물리적 환경들이 좋지 않다고 인식할수록, 범죄피해를 경험할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범죄두려움을 보다 많이 인식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특히, 학력은 범죄 위험의 인지와와의 관계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범죄두려움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범죄두려움 관련 설명요인들 중 다른 요인들에 비해 범죄 위험의 인지가 가장 직접적인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외 요인들이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Ferguson & Mindel, 2007). 그리고 범죄 위험의 인지를 제외하면, 성별이 가장 강력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성용은·유영재, 2007; 박철현, 2005; 노성호·김지선, 1998; 정승민, 2007; 박철현·최수형, 2009; 박정선·이성식, 2010; 장안식 외, 2011).

특히, 성별과 범죄피해경험을 제외한, 연령, 소득수준, 학력에서 다른 요인들에 비해 표준화계수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기존의 연령, 소득수준, 학력과 범죄두려움 간의 관계를 규명한 선행연구들에서 그 관계가 서로 상반되거나 효과가 미미하게 제시된 연구들과 동일한 결과가 제시되었다(Ferraro, 1995; LaGrange

et al, 1992; Mawby, 2004; Jones, 1987; Zimring et al, 2009; 김은경 외, 2014; 박정선·이성식, 2010; 장안식, 2015).

또한 지역사회요인과 범죄두려움 간의 관계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며(Kohm, 2009; DeLone, 2008; McCrea et al, 2005; 김연수, 2015; 고준호, 2009; 차훈진, 2008), 위험해석모형의 경로적 관계에 주목한 김연수(2015)의 연구에서 지역사회 요인이 범죄 위협의 인지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범죄 위협의 인지는 범죄두려움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종합하면, Ferraro(1995)가 제시한 위험해석모형의 인과적 경로관계에서, 미시적 개인요인과 지역사회요인이 범죄두려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범죄 위협의 인지에 매개하여 범죄두려움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존의 범죄두려움에 대한 미시적 혹은 거시적 설명요인들의 개별적인 접근을 넘어서, 미시적·거시적 설명요인을 통합하여 보다 넓게 범죄두려움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범죄 혹은 범죄두려움에 있어 특정 요인이 다른 요인에 비해 더욱 높은 직접적 영향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보다 실체적으로 범죄두려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특정 요인과의 독자적인 관계가 아닌 다양한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의 산물로 이해하여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상호작용과 동시에 시간, 장소, 범죄자, 그리고 피해자의 특성이라는 조건들의 결합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이는 위험해석모형에서 제시된 미시적·거시적 요인들을 통합하여 다차원적인 범죄예방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미시적 범죄예방전략의 경우, 범죄에 대한 책임을 일정부분 개인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이에 개개인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장비사용, 늦은 시간 혹은 만취 후 귀가를 금지하는 등의 개인의 노력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거시적 범죄예방전략은 범죄의 책임을 개인보다는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로 전환시키고, 범죄예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도 지역사회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거시적 범죄전략으로는 최근 무질서모형에서 제시된 지역사회 내 물리적·심리적 환경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그 외는 CPTED에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을 차단하는 방식 등을 제공하고 있다.

위험해석모형은 이러한 기존의 범죄예방전략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오히려 기존의 범죄예방전략을 단편적인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에 개인과 사회가 동시다발적으로 범죄예방에 대해 노력할 때, 범죄가 예방된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개인적 차원에서 보호능력을 강화하고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시간, 장소 등을 회피하는 노력과 함께, 지역사회가 스스로 사소한 일탈을 방지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의 정화, 지역사회 내의 구성원들에 대한 애정적 결속상태의 강화 등의 노력도 매우 중요시 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또한 이러한 기존의 방식을 통합하여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하면서, 본인이 판단했을 때, 범죄피해에 대한 가능성을 의미하는 범죄 위협의 인지인 정서적 측면에 대한 범죄예방전략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범죄예방전략이 두려움이라는 정서적 측면보다는 외부적 환경 변화에 중심을 두었던 점과 차별화되는데,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순찰과 방법지도 등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강화가 적절한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즉, 순찰과 방법지도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신중범죄에 대한 소개, 범죄피해에 대한 예방 및 대응방안 등의 정보 제공, 또한 형사사법기관에 조력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소개한다면, 보다 정서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제시될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이 연구는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우선, 2차 자료의 한계로, 실제로 범죄 위협의 인지라는 변수가 범죄두려움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측정변수를 통해, 이를 잠재변수처럼 구성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다만 위험해석모형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이 국내에는 아직 부족하다. 그러한 소수의 선행연구에서도 단 하나의 측정변수를 사용하여 분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범죄 위협의 인지를 연구모형에 포함한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범죄 위협의 인지를 포괄할 수 있는 척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자료의 구성이 횡단 자료로 구성되어 있어, 독립변수들 간의 시간적 우선순위를 규명하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한 보다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길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고준호 (2009). 범죄와 두려움의 공간적 특성.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상운·신재현 (2012).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민간경비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경비학회지, 32, 33-63.
- 김연수 (2010).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원인과 반응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연수 (2015). 범죄두려움과 자기보호행동의 관계에 관한 위험해석모델의 재검토. 제3회 전국범죄피해조사학술대회, 61-81.
- 김은경·황지태·황의갑·노성훈 (2014). 전국범죄피해조사 2012.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574.
- 노성호·김지선 (1998).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경험적 연구. 피해자학연구, 6, 169-205.
- 박정신·이성식 (2010). 범죄두려움에 관한 다수준적 접근. 형사정책연구, 83, 173-203.
- 박철현 (2005). 범죄피해경험, 이웃통합 그리고 범죄의 두려움: 대학생에 대한 심층면접결과를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13(1), 51-77.
- 박철현·최수형 (2009). 서울시 강남구의 CCTV 설치가 범죄예방에 미치는 효과: 첫 신문보도 시점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79, 217-242.
- 성용은·유영재 (2007). 시민의 개인적 특성과 범죄두려움 관계 분석. 한국경찰경비학회지, 14, 261-283.
- 신소영·김창호 (2015). 위험해석모델에 따른 노인의 범죄피해두려움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경비학회, 45, 221-242.
- 신의기·이경훈·강석진·박형아 (2014). 범죄유발 지역·공간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적용 및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 (Ⅲ).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198.
- 이민식 (2000). 범죄에 대한 반응: 일반모델의 검증. 형사정책연구, 44, 156-187.
- 이성식 (2000). 거주지역의 특성과 범죄두려움-위험해석모델의 검증. 형사정책연구, 41, 74-91.
- 이윤호 (2007). 범죄학. 서울: 박영사.
- 장안식 (2012). 지역 이질성이 범죄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회 2012 후기 사회학회, 45-63.
- 장안식 (2015). 범죄에 대한 두려움: 지역적 특성에 따른 다층모형 분석. 제3회 전국범죄피해조사학술대회, 101-128.

- 장안식·정혜원·박철현 (2011). 범죄두려움에 있어서 성과 연령의 상호작용효과. *형사정책 연구*, 87, 291-326.
- 정승민 (2007). 범죄두려움에서 지역특성과 경찰활동의 상호작용효과에 관한 연구. *사회연구*, 14, 43-73.
- 조은경 (2003).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9(1), 1-21.
- 차훈진 (2008). 성별에 따른 범죄에 대한 인식이 범죄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찰연구*, 7(3), 178-210.

2. 국외문헌

- Chiricos, T., Eschholz, S., & Gertz, M. (1997). Crime, news and fear of crime: Toward an identification of audience effects. *Social problems*, 342-357.
- DeLone, G. J. (2008). Public housing and the fear of crime.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6(2), 115-125.
- Ferguson, K. M., & Mindel, C. H. (2007). Modeling fear of crime in Dallas neighborhoods a test of social capital theory. *Crime & Delinquency*, 53(2), 322-349.
- Ferraro, K. F. (1995). *Fear of crime: Interpreting victimization risk*, SUNY press.
- Furstenberg, F. F. (1971). Public reaction to crime in the streets. *The American Scholar*, 601-610.
- Garofalo, J., & Laub, J. (1978). The fear of crime: Broadening our perspective. *Victimology*, 3(3-4), 242-253.
- Hindelang, M. J., Gottfredson, M. R., & Garofalo, J. (1978). *Victims of Personal Crime: An Empirical Foundation for a Theory of Personal Victimization*, Ballinger. Cambridge, Mass.
- Jones, G. M. (1987). elderly people and domestic crime reflections on ageism sexism, victimology.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27(2), 191-201.
- Keane, C. (1992). Fear of crime in Canada: An examination of concrete and formless fear of victimization. *Canadian J. Criminology*, 34, 215.
- Killias, M. (1990). Vulnerability: Towards a better understanding of a key variable in the genesis of fear of crime. *Violence and victims*, 5(2), 97-108.
- Kohm, S. A. (2009). Spatial dimensions of fear in a high-crime community: Fear of crime or fear of disorder?. *Canadian Journal of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51(1), 1-30.
- LaGrange, R. L., & Ferraro, K. F. (1989). Assessing age and gender differences in perceived risk and fear of crime. *Criminology*, 27(4), 697-720.
- LaGrange, R. L., Ferraro, K. F., & Supancic, M. (1992). Perceived risk and fear of crime: Role of social and physical incivilitie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9(3), 311-334.

- Mawby, R. I. (2004). Myth and reality in rural policing: perceptions of the police in a rural county of England. *Policing: 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e Strategies & Management*, 27(3), 431-446.
- McCrea, R., Shyy, T. K., Western, J., & Stimson, R. J. (2005). Fear of crime in Brisbane: Individual, social and neighbourhood factors in perspective. *Journal of Sociology*, 41(1), 7-27.
- Rountree, P. W. (1998). A reexamination of the crime-fear linkag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5(3), 341-372.
- Skogan, W. G. & Maxfield, M. G. (1981). *Coping with crime: Individual and neighborhood reactions*. Sage Library of Social Research.
- Skogan, W. G. (1987). The impact of victimization on fear. *Crime & Delinquency*, 33(1), 135-154.
- Warr, M. (2000). Fear of crime in the United States: Avenues for research and policy. *Criminal Justice*, 4(4), 451-489.
- Warr, M., & Stafford, M. (1983). Fear of victimization: A look at the proximate causes. *Social Forces*, 61(4), 1033-1043.
- Williams, P., & Dickinson, J. (1993). Fear of crime: Read all about it? The relationship between newspaper crime reporting and fear of crim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33(1), 33-56.
- Zimring, F. E., Jennings, W. G., Piquero, A. R., & Hays, S. (2009). Investigating the continuity of sex offending: Evidence from the second Philadelphia birth cohort. *Justice Quarterly*, 26(1), 58-76.

【Abstract】

Verifying the factors on fear of crime applying risk interpretation model

Song Young-Nam · Lee Seung-Wo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factors that affect the fear of crime by applying the risk interpretation model. Especially, whereas previous studies have not proven micro individual factor that the risk interpretation model had presented, This study includes micro individual elements such as neighborhood factor, perceived risk of crime, fears of crime as main variables. This study utilized secondary data of the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2012, conducted by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In this stud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two stages and Sobel Test were conducted for verifying the individual influence of each independent variables and identifying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bles set out in the risk analysis model. As the result, it appeared that the higher level of perceived risk of crime, neighborhood factor, crime experience, education, income cause the higher degree of the fear of crime. On the other hand, the lower degree of age was found to induce the higher level of the fear of crime. In addition, female showed the higher degree of the fear of crime than man.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bles set out in the risk interpretation model was presented significantly in all variables, except for education.

Key words : fear of crime, risk interpretation model, personal(micro), neighborhood traits, perceived Risk, multiple regression analysis